

가을호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Autumn | VOL. 4

단풍 가득 색색이, 열매 가득 알알이

발그레 여울진 산자락 너머로

너른 들녘 바라는 사색으로 가을이 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가을이 옵니다.
밭그레 여울진 산자락 너머로
단풍 가득 색색이
열매 가득 알알이
너른 들녘 바라는 사색으로 옵니다.

타 버린 농염 가득 담아
가지마다 주렁주렁 안기지만
식여가는 고갯마루
양상한 가을 넉
차갑게 잊혀갈 소멸을 예감합니다.

땅을 딛고 일어난 줄기마다
잔가지 날아든 새들은
떨쳐 버릴 미혹이고
피고 지는 잎사귀는
잊혀갈 번뇌인 것입니다.

산 너머 가을이 옵니다.

굳고 높은
하늘 향해 기상 곧추 세우고
딛고 일어설
땅을 향해 신념 뿌리 내리는

우리들 가을이 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Autumn | VOL. 4

Name Story

길은 혼자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김동무와 함께 하여야
더 행복합니다.
휘청일 때 손 내밀어주고
힘들면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 기울여주며
나란히 걷는 이가 있다면,
한걸음 내딛는 발길이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행합니다.

발행인 태석기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5년 9월 1일 (통권 4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

- 04 Letter 존재의 이유 위에 소통과 화합을 더해서
- 06 Focus 함께 걸어 온 10년
- 08 Good Doctor 환자 치료에 양방 · 한방 따로 없죠
- 12 Introduction 양 · 한방 뇌건강 융합 클리닉
- 13 Smart Tip 치매와 수면장애
- 14 Column_1 알레르기 비염 주의보
- 16 Column_2 생활방식이 만성염증질환을 일으킨다
- 18 Essay 참된 치유가 일어나려면
- 20 Travel 정릉 흥천사
- 22 Taste 국화떡케이크와 국화차과편
- 24 동국보감 가정 상비약 소도환 · 청간환
- 25 Zoom in Dongguk DUMC NEWS
- 31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 35 진료일정 안내



존재의 이유 위에 소통과 화합을

의료원장 소임을 맡으며

노(老)교수의 결심

원장을 지낸 시니어교수로서 몸과 마음이 편하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다시 의료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게 되는 모든 결정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임을 맡을 때는 타당한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동국대학교 의학·한의학 계열의 교육과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를 다시 맡은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부처님 자비실천도량으로써 번듯한 병원을 만들어 달라는 불자들의 서원의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교수 말년에 원장직을 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직원들을 존중합니다.

한번 했던 일을 다시 하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복잡한듯 해도 대부분의 문제에는 해결방법이 있더라는 경험,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닌 마음가짐이라는 진리, 리더는 군림이 아닌 하심(下心)으로 구성원들의 역량을 끌어내야 한다는 걸 적어도 머리로는 안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정말 아는 걸로 착각하지 말자 다짐하지요. 책에서 레시피를 수십 번 읽어도 요리를 직접 만들며 느낀 것과는 다르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을 존중합니다. 각자 영역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직원들의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경영자라도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어떤 모습일까?

서울에 볼일이 있어 원당쪽으로 운전하고 가면 북한산의 서북쪽이 보입니다. 강남쪽에서 볼 때의 웅장함은 없지만 만만(滿滿)하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일산으로 직장을 옮기지 않았으면 몰랐을 모습이지요. 보는 위치와 시점에 따라 다른 건 세상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북한산을 대충이라도 알려면 여러 방향의 외관뿐 아니라 직접 가보고 책속의 지식, 역사까지도 뒤져봐야 하죠.

우리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봅니다. 많은 우수한 병원들이 서방종교에서 선교 방편으로 시작한 사업들이 기원이 됐습니다. 길게는 100년, 적어도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대부분 대학병원화 되었지요.

동국대학교는 어떤가요? 한의대는 좀 빨랐지만 의대와 병원을 갖게 된지는 채 30년이 안됩니다. 후발주자이며 지방 소재 대학으로서의 불리함 등으로 아직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위상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편 1990년대 불교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전국에서 모금된 삼보정재로 건립된 일산불교병원은 2005년 불교계의 큰 기대 속에 개원 후 지역의 대형병원 과밀, 불편한 교통과 같은 불리한 외부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착에 성공하였지만 아직 목표했던 모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요. 지나고 나면 모든 일에 후회가 남게 마련이지만 일산불교병원의 창립멤버이며 한때 원장의 소임을 맡았던 저로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많습니다. 더욱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부의 의료환경을 과연 우리가 현재의 진용과 시스템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 위에 소통과 화합을

그러나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현명한 사람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요. 물론 우리가 변화해야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의료원이, 본인이 속한 병원이 왜 존재하나 하는 점을 한번쯤 생각해봅시다. 구성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있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소통, 화합하면 전체적으로는 큰 힘을 만들 수 있지요. 2300여 교직원이 근무하는 우리 의료원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 문제없는 조직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재임중에 병원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목적으로 의료진의 세대교체와 유능한 인재 영입, 주변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수립과 의료원에 대한 법인의 신뢰회복을 통한 투자유도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많이 성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태 석 기 합장

경력 ▶ 197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정형외과 전문의, 중앙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과장 역임, 제14대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역임(2011. 9 ~ 2013. 2), 現 2015년 5월 제16대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개원 10주년

함께 걸어 온 10년

약사여래 12대원을 이루기 위한
이천만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건립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0월 착공하여 2002년 9월 준공,
그리고 2005년 9월 개원까지,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함께한 10년.
건강한 세상을 향한 열 걸음 속을 걸어 봅니다.

2005 첫 걸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 2005. 05. 세계 최초 양 · 한방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2005. 06.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개시
- 2005. 07.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진료개시
- 2005. 09.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개원

2006 한 걸음

길은 걸어가는 사람이 만듭니다.
우리는 건강과 행복이 만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 2006. 01.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 2006. 04. 중앙신도회 반갑다 연우야 의료지원 사업협약
- 2006. 05. 의과학연구소 개소
- 2006. 08. 관절병 센터 수술 1000례 달성
- 2006. 11.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 및 일산불교병원 개원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Aging and Well-Being 개최

2007 두 걸음

앞선 의술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동행합니다.

- 2007. 02. 암센터 개소
- 2007. 04. 동국대학교의료원 출범
- 2007. 05. 경기북부 첫 인공와우 이식술 성공
- 2007. 05. 수술 진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2008 세 걸음

함께 움직이는 세상을 향해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 2008. 0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최우수의료기관 선정
- 2008. 07.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MOU체결
- 2008. 09. 임상시험센터 개소
- 2008. 10. 제1호 신장 장기이식 성공

2009 네 걸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따뜻한 손길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 2009. 03. 다리혈관센터 개소
- 2009. 03. 양 · 한방 협진 연구결과 발표
- 2009. 06.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 2009. 09.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2009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선정

2010 다섯 걸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끝없는 도전은 뜨거운
열정과 만나 더 큰 치유에너지로 뻗어 나갑니다.

- 2010. 07. 2010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 선정
- 2010. 09.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진료예약 앱 서비스 시행
- 2010. 09. 고양시와 공동협력양해각서 체결
- 2010. 09. 양한방 통합 뇌손상 집중치료센터 개소
- 2010. 10. 갑상선센터 개소



2011 여섯 걸음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태양처럼
한결같은 발걸음이 세상을 희망으로 물들입니다.

- 2011. 03.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보건복지부 1주기 우수의료기관 인증 획득
- 2011. 04. 한국인 뇌MRI영상 DATA 센터 지정
- 2011. 04. 급성이완성마비 감시체계 중점병원 선정
- 2011. 07.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난임(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 책임연구자 선정
- 2011. 12. 소화기내시경 검사 10만례 돌파

2012 일곱 걸음

가슴속에 맺히고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새기며
여러분의 마음속을 걸어갑니다.

- 2012. 01. 201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 2012. 04. 외국의료인력 병원연수 시작
- 2012. 05. 재활의학과 권병선 교수 대통령 표창
- 2012. 06. 국제진료센터 개소
- 2012. 11. 임상정신약물학연구소 개소

2013 여덟 걸음

건강한 생활을 꿈꾸는 생명존중의 정신은
인류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 2013. 01. 세계 최초로 CT를 이용한 혈전 탐지 나노영상기술 개발
- 2013. 04. 염증이 심한 불안정성 동맥경화반을 빛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 2013. 07.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3년 연속 최우수등급 획득
- 2013. 10.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2회 연속 1등급 획득
- 2013. 12. 불교의학연구소 설립

2014 아홉 걸음

오래된 친구의 든든한 어깨가 되어
더불어 함께 걷고자 합니다.

- 2014. 02. 보건복지부 지정 응급의료센터 4년 연속 최우수 선정
- 2014. 05. 뇌졸중 최우수병원 선정
- 2014. 12. 신경과 김동역 교수, 세계 최초 한국인 허혈성 뇌 지도 완성
- 2014. 12. 유방암, 대장암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고관절치환술, 간암, 폐암 평가 1등급 획득

2015 열 걸음

단 한걸음의 차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한발 더 내딛고 있습니다.

- 2015. 01.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보건복지부 1주기 우수의료기관 인증 획득
- 2015. 01.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 센터 본격 가동
- 2015. 02.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보건복지부 2주기 우수의료기관 인증 획득
- 2015. 04.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4회 연속 1등급 획득
- 2015. 04. 산재의료기관 평가에서 종합병원 2위

10th
10년의 열정
100년의 희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개원 10주년

환자 치료에 양방 · 한방 따로 없죠

양 · 한방 융합 뇌건강 클리닉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 광 기 교수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구 병 수 교수

병원보에 실릴 사진촬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한
김광기 교수(신경과)와 구병수 교수(한방신경정신과).
사진촬영 중이라는 건 잠시 잊은 듯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치매 연구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늘 이렇다”며
멋쩍게 웃는 두 사람,
그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서로에 대한 믿음 있어 융합 가능

김광기 교수와 구병수 교수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진료실에서 같은 환자를 진료한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3층에 있는 ‘양 · 한방 융합 뇌건강 클리닉’이 두 사람의 공동 진료실이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치매, 건망증, 불면증 환자들을 맞는다. 최근 서양의학과의 한의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양 · 한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병원이 점차 늘고 있지만, 한방과 양방 전문의가 이처럼 한 진료실에서 같은 환자를 진료하고 이후 치료까지 책임지는 것은 드문 일이다.

“동국대학교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은 양방과 한방 진료를 모두 받기 원해요. 하지만 양방과 한방 진료실을 오가며 진료를 받기란 번거로운 일이죠. 한방과 양방 전문의가 함께 한 공간에서 진료를 하면 환자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김광기 교수)

얼핏 단순한 논리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두 사람도 잘 안다.

“비슷한 분야의 전문의라도 한 방에서 동시에 진료하라면 힘들어 할 거예요. 더구나 양방과 한방 의사가 함께 진료한

다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죠. 그동안 양 · 한방 협진이 꾸준히 시도됐지만 이렇다 할 큰 결실을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도 양 · 한방 융합 뇌건강 클리닉이 출발할 수 있었던 건 저와 김 교수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구병수 교수)

‘뇌 건강’ 함께 고민하다 의기투합

두 사람은 2006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몸을 담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개원 초창기 멤버라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김 교수는 구 교수가 사촌매형 친구여서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소탈하면서도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구 교수의 성품과 연구태도에도 끌렸다. 구 교수에겐 김 교수가 처음부터 ‘그냥 정이 가는 사람’이었다. 자신보다 나이는 한참 아래지만 ‘뇌 질환’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눌 땐 김 교수에게 든든한 ‘동료 의사’로서의 믿음이 갔다. ‘술자리보다는 서로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걸 더 좋아한다’는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명상 공부모임도 함께



신경과 김 광 기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
강원대학교병원 전임강사
미국 신시내티의과대학 신경과 교환교수

전문진료분야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기억 및 인지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문의 신경과 외래 031·961·7200



한다. 그러다 ‘뇌 건강을 위해선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데 뜻이 모아졌고, 양·한방을 넘나드는 융합 클리닉을 운영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육개월 이상 연구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양방과 한방 각각의 최적화된 검사와 치료모델도 개발했다.

“의사가 자발적으로 병원에 제안해 클리닉을 개설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닐거예요. 병원 측은 그걸 흔쾌히 받아줬고요. 그만큼 책임감이 큼니다.”

(구병수 교수)

두 사람이 융합 클리닉에서 집중하는 질환은 치매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8.7%였던 65세 이상 치매노인 비율은 2020년 10.4%, 2050년 15.1%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선 노인들이 암을 제치고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손꼽기도 했다.

구 교수와 김 교수는 “치매는 환자 못잖게 가족이 겪는 고통이 큰 질환”이라며 “아직 완치법을 찾지 못했는데 한방이 더 효과적이나, 양방이 더 효과적이나를 따진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양방이나 한방이나 따지는 것 무의미

양·한방 융합 뇌건강 클리닉은 융합 진료를 원하는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매 환자의 경우 대개 동반한 보호자로부터 환자 상태를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다 양방과 한방 진료가 각각 이뤄져야 하는 까닭에 진료 시간이 꽤 길어진다. 의료환경상 보통 10분을 넘기기 어려운 일반 외래 진료와 달리 이곳 융합 클리닉의 진료시간은 한 환자당 30분이다. 평소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쫓기듯 봐야 하는 두 사람에겐 환자에 대한 마음의 빔을 털 수 있는 진료실이다.

김 교수와 구 교수는 치매 원인에 대해선 “한방이나 양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단지 표현법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한방에선 몸 자체의 해독기능이 약해져 생기는 어혈과 담으로 인해 뇌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도 온다고 봐요. 몸속 노폐물이 해독이 안돼 생기는 질환이죠.”(구병수 교수)

“양방에서도 치매는 퇴행성질환이에요. 대개 뇌에 좋지 않은 물질이 축적돼 생기죠.”(김광기 교수)

치매 원인을 보는 시각과 달리 진료와 치료법은 확연히 다르다. 혈액검사, MRI촬영, 인지검사 등의 양방진료와 화병·어혈·우울증·체질검사 등의 한방진료를 마치면 두 사람은 최상의 검사결과를 이끌어내려고 머리를 맞

댄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각자 배우는 것도 많다. “양방의 경우 약 처방을 하고나면 1~2개월 후에나 환자와 다시 만나요. 반면, 구 교수는 침을 놓고 뜸도 뜨면서 환자를 더 친밀하게 자주 접하죠. 환자의 심리상태를 잘 포착하는 것도 배울 점이예요.”(김광기 교수)

구 교수 또한 “환자를 편안하게 대하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해내는 김 교수의 진료 스타일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다.”고 했다. “사고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그는 “책으로만 보던 진료현장을 직접 보면서 새로 공부하고 싶다는 의욕도 생긴다.”고 귀띔했다.

환자의 치료효과 극대화가 공통 과제

지난 5월 문을 연 융합 클리닉의 성과를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희망적’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 무엇보다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방법을 찾아주는 환자중심의 클리닉이라는 점에서다. 융합 클리닉을 이용한 환자들 중 치료효과가 높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치매는 만성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두 사람은 “한방과 양방이 지금껏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사람은 이를 위한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 교수는 뇌기능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향 연구에 10년 넘게 몰두하고 있다.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약재 개발도 그의 중요 과제다.

김 교수는 치매 환자들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기관 약물 임상연구에 참여하였고, 현재도 단일 연구기관 임상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구 교수는 “새롭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클리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김 교수는 “아무도 해본 적 없는 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피드백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수정하고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양·한방 융합 클리닉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치매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이에요. 치료법을 찾는 데 양방과 한방이 따로 있을 수 없죠.” ●



한방신경정신과 구 병 수 교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동국한방병원 전공의
동국대학교 동국한방병원 전임의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교수
前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병원장

전문진료분야

치매, 화병, 불면증, 두통, 공황장애

문의 한방신경정신과 외래 031·961·9140



치료효과 극대화 위한 환자중심 진료시스템
양 · 한방 뇌건강 융합 클리닉

양 · 한방 경계 허문 치료

지난 5월 문을 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양 · 한방 뇌건강 융합 클리닉은 치매처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뇌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하지만 여느 클리닉과는 다르다. 이름 그대로 양방과 한방의 경계를 허문 융합 클리닉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확대되는 양 · 한방 협진과도 차이가 있다. 필요에 따라 양방과 한방 협진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아예 초기진료부터 치료까지 양방과 한방 의사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진료도 한 진료실에서 이뤄진다. 진료를 맡고 있는 김광기 교수(신경과)와 구병수 교수(한방신경정신과)는 클리닉 개소를 앞두고 6개월 이상 연구를 통해 치매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양방과 한방 각각의 최적화된 검사와 치료모형을 개발했다.

치료효과 극대화 위한 융합

융합 클리닉은 치매환자뿐 아니라 건망증, 불면증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친구이름이나 가족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단어가 허끝에서 맴돈다면,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는 등 뇌기능이 떨어져 나타나는 건망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뇌건강에 필수인 숙면을 돕기 위한 치료도 한다. 검사는 혈액검사부터 신경심리검사, 뇌파검사, 뇌영상검사 등 현대과학적인 최신기법으로 이뤄진다. 화병 · 허혈 · 우울증 · 체질 검사 같은 한방검사도 진행된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의학의 약물치료부터 한방의 침, 뜸, 완화요법, 명상요법 등을 병용한 치료가 이어진다. 초기진단부터 검사결과 해석, 치료에 이르기까지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환자중심의 진료 시스템이다. 이외에 뇌기능을 떨어뜨리는 생활습관 · 스트레스 관리, 치매 조기진료와 치료 등 뇌 건강을 위한 예방의학 차원의 통합관리도 한다. 양 · 한방 뇌건강 융합 클리닉 측은 “동국대학교병원이 지금까지 축적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노하우가 밀바탕이 된 클리닉”이라며 “조기 진단을 통한 치매 예방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나아가 뇌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한 정신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어르신들이 암을 제치고
치매를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손꼽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매와
수면장애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치매의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에 의한 치매가 있고, 뇌졸중과 관련되는 혈관성 치매, 이외에 뇌의 외상, 염증, 종양, 알콜 등의 독성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억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불편한 사건이 생긴다.
- 이전에 다니던 길을 못 찾는다.
- 냄새를 맡지 못해 음식 맛을 모르거나, 만든 음식의 맛이 이상해졌다.
-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우울해졌다.

등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 하나 하나를 가지고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건망증과 치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건망증과 치매는 그 증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건망증과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건망증은 특정 사실 등을 금방 기억 못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고, 특정 단서를 통해 기억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치매 환자들은 암시나 단서 등을 통해서도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억력 등에 대한 인지 기능 장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서 치매 환자는 일상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알츠하이머병은 유전되나요?

알츠하이머병은 유전될 수 있지만, 전체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에 유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일부 유전자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하면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과다수면, 어떻게 하면 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지, 수면 자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짧고 않고, 질도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주간 졸리움증이 심하다면 과다 수면증이나 기면병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잠이 오지 않아도 누워있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만성 불면증 환자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결코 불면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리에 누우면 조건반사적으로 잠을 자는 조건형성이 되어야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반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겪을 때 피곤함을 느껴 낮에도 잠자리에 누워 있거나,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만성 불면증을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재채기와 콧물로 얼룩지는 가을, 알레르기 비염 주의보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비인후과
최진수 교수

전문진료분야
두경부 외과

진료시간
오전 » 수, 목
오후 » 월, 수, 금

문의
이비인후과 외래 054 · 770 · 8261



심각한 질환이 아니면서도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질환 중의 하나가 알레르기 비염이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봄, 가을철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외부 활동, 대인 관계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수험생들에게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1년 2.7%의 유병률이 2010년 15.7%로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병률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유전적 요인, 생활양식의 서구화,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들의 증가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레르기성 비염

외부에서 이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면역 반응이 정상보다 과민하게 일어나서 몸에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한다. 알레르기 항원으로는 집먼지 진드기, 나무 · 잔디 · 잡초에서 날리는 꽃가루, 곰팡이,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 음식물, 약물 그리고 바퀴벌레 겹질 등이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체질과 주위의 알레르기 유발인자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발생하는데, 부모 모두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알레르기 질환을 가질 확률은 80%이고 부모 중 한쪽이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는 30%의 확률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주로 기온차가 심한 아침에 발작적인 재채기와 코막힘, 맑은 콧물 그리고 코, 눈 및 입천장, 목속 등의 가려움증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적인 4대 증상이다. 그 외 코 주위 가려움증, 후각 능력 저하, 두통 등이 있을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이염, 물혹(비용종), 부비동염, 후각소실, 만성기침 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입으로 계속 숨을 쉬게 되면 얼굴의 모양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될 수도 있다.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가족병력, 진찰소견과 함께 확진을 위한 적절한 알레르기 검사를 한 후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임상검사로는 코 분비물 도말검사, 혈액중 호산구검사, 피부반응 검사, 알레르기 유발반응검사, 혈중 IgE(이뮤노글로불린-E)항체 측정검사 등이 있으며,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는 대부분 30분 이내에 진단이 가능하다. 그 외 결과에 따라 RAST 검사(혈청에 대한 동위원소를 이용한 특이항원 진단법)나 MAST 검사(혈청에 대한 화학반응을 이용한 특이항원 진단법)를 실시할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회피요법 : 집 안을 자주 환기시키고, 카펫이나 천으로 된 소파 등은 자주 소독하거나 청소하며, 실내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해서 진드기의 번식을 막는 방법이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 유발시기에 되도록 외출을 피하거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또한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오전 5~10시 사이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약물요법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는 항히스타민제로 경우에 따라 점막수축제,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 항콜린제, 비민세포 안정제, 스테로이드 분무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면역요법 : 피하주사요법과 설하요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피하주사요법은 아주 낮은 농도부터 점차 농도를 높여가면서 2주, 4주의 간격으로 늘려 유지치료하는 방법이며, 비교적 환자 순응도가 좋은 설하요법은 원인 물질을 환자가 직접 혀 밑에 투여하는 것으로, 투여 용량을 점차 늘이는 방법과 처음부터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다.

수술요법 : 약제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시행하는 방법으로, 코살(비갑개)의 비후나 비중격만곡증이 심하여 발생하는 코막힘의 경우 하비갑개성형술을 시행하거나 코블레이터나 셀론 그리고 탄산가스(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부어 있는 코살의 부피를 줄여주면 코막힘은 거의 해결할 수 있다. ●

외부에서 이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면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면역반응이 정상보다
과민하게 일어나서
몸에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한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생활방식이 만성염증질환을 일으킨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선천면역의 결과로 인한 염증 때문이다. 이러한 염증이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염증을 이끈다.

하지만 염증은 원래 상해(injury: mechanical/chemical injury, microbial invasion) 후 손상과 침해를 제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으로, 항생제와 같은 의학의 도움 없이도 사람이 생존 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반응이다.

점점 악화되는 요인

식단의 서구식 변화,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 등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우리의 선천면역과 교감신경-부신수질/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중심축에 변화를 유도하여 인체 내 에너지 조절(energy regulation)과 신경내분비-면역체계(neuroendocrine-immune control)의 불균형으로 염증의 회복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과도하고 부적절한 선천성 면역 시스템의 활동에 의해 유발된 염증은 진화적 맥락에서 새로운 위험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감신경의 과항진 상태가 유지되면 위험 요소가 아닌 물질에도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조직을 손상시키고 더욱이 서구식 식단과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들은 염증 반응이 더욱 크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과도한 세포의 염증 반응은 진액(津液)을 부족하게 만들어 혈액의 양과 질을 변질되게 함으로써 혈액의 순환 과정을 둔화되게 하고 염증의 회복을 더디게 한다.

만성염증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헬스케어는 만성염증질환으로의 발전을 피하기 위하여 조용하게 진행되는 약한 염증 정도의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운동을 하기 싫어한다든지, 피로, 감정의 단조로움, 사회적 고립, 성욕감퇴, 불면 혹은 다면 및 강박적 행동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만성적이고 낮은 등급의 염증 단계를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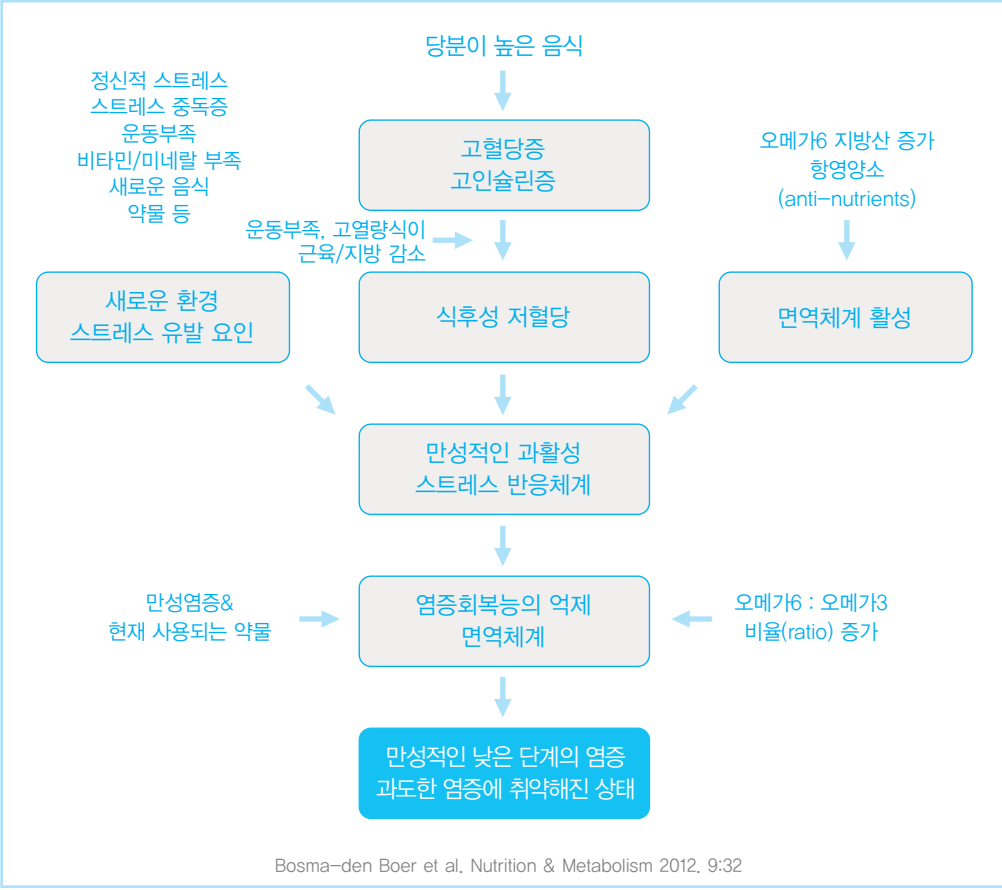
만성염증의 초기단계에서 음식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염증의 치유력과 적절한 선천면역을 회복하여 만성염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만성염증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약물과 음식의 조합 및 스트레스 조절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염증질환의 예방 및 치료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와 더불어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음식의 변화, 정신적-감정적 스트레스의 해소 및 운동을 비롯한 생활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학의 강점이 있다. 애노희락(哀怒喜樂)의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맞춤진단과 진액(津液)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인체의 항상성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둔 한방치료는 만성염증의 회복기능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선천면역의
결과로 인한
염증 때문이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려면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다! 누구든 반드시 질병을 인생에서 질질 끌고 다니는 운명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다.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프지 않은 상태다. 자연 그대로는 언제나 완전하다. 우리는 언제나 아프지 않았던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회귀하고 있는 중에 있다. 자연 치유력은 단 한 순간도 작동을 하지 않을 때가 없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치유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본래 건강한 자연 상태의 나에게 질병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질병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온다.

첫째, 그것은 나를 깨어나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참된 진실, 진리의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배움과 귀의(歸依)의 여정이다. 그런데 배움과 깨우침이란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좋은 일, 행복, 기쁨, 건강을 통해서도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반대를 통해서도 균형 있게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다. 즉 건강 속에서 깨닫는 만큼 질병 속에서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언제나 역동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파장으로써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 등이ダイナミック하게 연출되고 있는 이유다. 삶은 하나의 파동이다. 파동은 언제나 골과 마루로 이어지듯 삶 또한 건강과 질병, 행복과 불행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건강할 때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 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일과 목표에 집착할 때 우주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시 쉴 수 있도록 질병을 만들어 내 주기도 한다. 우주는 언제나 삶의 중도와 균형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병을 통해 너무 집착하지 말고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과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병의 두 번째 이유는 업장소멸, 카르마의 정화에 있다. 쉽게 말해 내면의 어둡고 탁한 부분이 병을 통해 풀려나가는 것이다. 즉 업장이 소멸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병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주법계의 진리는 언제나 업장이 소멸되어야 할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있다. 내 안에 켜켜이 쌓인 업장의 어둡고 탁한 덩어리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우리 몸은 한결 가볍고 청정하게 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병은 목적이 있어서 찾아온다. 그것도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나를 진정으로 살리고 돕기 위한 무한한 사랑과 대자대비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온갖 질병을 만들어 내고 그 속으로 당신을 집어던지지 않는다. 그것을 하는 쪽은 오히려 내 쪽이다. 그러니 질병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결코 그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다. 외부를 탓할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의 결정이며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치유는 이러한 자기 책임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병의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그 치유의 힘 또한 외부가 아닌 내면에 두게 되기 때문이다. 그 때 비로소 치유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지혜가 생겨난다.

우주법계의 근원적 에너지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기에 우리는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언제나 자비와 사랑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는 상태에 있다. 이 우주는 언제나 우리를 완전한 치유의 상태로 이끌고 있으며, 나 자신의 내적 치유력 또한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며 나 자신을 돕고 있다.

사실 질병은 최악이 아닌 최선으로써 온 것이며, 문제가 아닌 ‘문제의 해결과정’으로써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깊이 상심하지 말라. 그것은 곧 하나의 커다란 전환과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새롭게 깨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의 늪늪한 찌꺼기들을 털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다. 병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병을 받아들이고 그 병이 찾아옴으로써 내게 깨닫게 해주고자 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 병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병에서 벗어나려고 애써오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병 속으로 뛰어들어 그것과 함께 있어 주기를 선택하라. 아픔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충분히 받아들여 아파해 주라. 병에서 벗어나려고 거부하는 마음을 돌이켜 병이 온 목적을 받아들여 병을 수용하고 사랑해 보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과 함께 있어주기를 선택할 때 나라는 존재의 깊은 심연에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비로소 그 때 내적인 참된 치유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병원의 치료도 다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 치료가 약사여래의 손길이라는 마음으로 톡 내맡긴 채 나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내면의 수용과 관찰과 사랑이라는 참된 치유의 수행을 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돌이 아닌 우주법계의 법신부처님과 내면의 자성부처님이 다차원적인 도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치유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내면에서 치유가 시작되면 이 우주 전체가 나를 돕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치유될 수 있다. ●



법상(法相) 스님

불심도문 큰스님 은사로 출가.
'목탁소리'(www.moktaksori.kr)' 지도법사,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진행,
저서로 <눈부신 오늘>, <날마다 해피엔딩>,
<금강경과 마음공부>, <붓다수업> 등이 있다.



사찰기행

조선의 첫 번째 왕후가 창건하고 마지막 황후가 머문 절

정릉 흥천사

조선의 첫 번째 왕후, 신덕왕후 강씨

하나의 왕조가 새롭게 개국한 뒤 개국 초창기의 왕성한 국력을 쏟아 창건한 절들이 있다. 고려 초 태조 왕건은 후백제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했던 논산벌에 개태사(開泰寺)를 창건하고 거대한 석조삼존불상을 조성해서 새 왕조 고려의 기상을 만방에 떨쳤다고 한다면, 조선 개국 후 태조 이성계는 지금의 정동에 흥천사를 창건했다. 조선 태조 6년(1397년)의 일이다. 겉으로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르는 것으로 통치이념을 삼았기에 태조의 흥천사 창건은 왕건의 개태사 창건에 비해 국력을 다 쏟아부을 만큼 대작불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태조는 흥천사 저녁 종이 울려야 잠에 들고 새벽 종소리에 깨어났다고 할 만큼 신덕왕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흥천사에 5층 목조건축으로 사리전을 세우고 통도사에 있던 부처님 정골와 불치사리를 이운해서 모셔두었다고 한다. 신덕왕후의 능이 지금의 정릉으로 이전한 것은 태종 때다. 태종은 계모인 신덕왕후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서 1408년 아버지인 태조가 죽자 바로 이듬해에 신덕왕후의 능을 도성 밖 정릉으로 옮기고 그 묘지석을 뜯어다 광통고 다리 석재로 썼다.

방화로 소실된 도성 안 사찰들

정릉이 옮겨 가고 나서도 흥천사는 한동안 정동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연산군 9년에 지금의 혜화동에 있었던 교종수사찰 흥덕사가 유생들의 방화로 소실되고 이듬해 흥천사도 이유 모를 화재로 사리전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불에 타게 된다. 이때가 1504년으로 연산군은 빈 절터를 왕실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사복시(司僕寺)로 전락시켰고 5년 뒤에는 그나마 남아 있었던 사리전마저 유생들의 방화로 소실되고 만다. 흥천사가 역사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선조 때다. 태종의 엄명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신덕왕후의 정릉이 선조의 명으로 복원되고 인근 작은 암자였던 신흥암을 능침사찰로 지정했다. 현종 10년(1669년)에는 신흥암이 정릉과 너무 가깝다고 해서 지금의 위치로 이건하고 절 이름도 신흥사(新興寺)라고 개칭했다. 그 뒤 정조 18년(1794년)에 성민(聖敏)과 경신(敬愼)스님이 왕명에 따라 현재의 위치에 다시 자리를 잡았고, 고종 2년(1865년)에는 흥선대원군의 지원으로 절을 중창해서 절 이름을 예전에 정동에 있던 신덕왕후 능침사찰 그대로 흥천사라 불렀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이 직접 흥천사(興天寺)라는 휘호를 내려 지금도 만세루에 그 현판이 걸려 있다. 또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은 다섯 살 때 이곳에 들러 할머니 앞에 재롱 피우는 손자처럼 양증맞은 글씨를 써 남겼다. 지금 흥천사 법당 안에 들어가면 천정 오른쪽에 걸려 있다.

마지막 왕비, 순정효황후

흥천사는 조선의 첫 왕비인 신덕왕후의 능침사찰로 창건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마지막 황후였던 순정효황후와도 깊은 인연을 맺은 절이다. 조선 마지막 왕인 순종의 계비였던 순정효황후 윤씨는 1950년 한국전쟁을 창덕궁 낙선재에서 맞았다고 한다. 정부도 부랴부랴 피난가는 마당에 몰락한 왕실의 왕족들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지 왕비와 공녀들은 그대로 창덕궁을 지켰던 모양이다. 인민군이 총을 들고 창덕궁 안으로도 몰려오자 순정효황후는 “여기는 조선의 국모가 있는 곳이다.”라고 호통을



치며 낙선재를 지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듬해 1.4후퇴 때는 피난을 갔다가 서울이 수복되자 돌아왔지만 창덕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찾았던 곳이 바로 흥천사 인근 오두막 수인재(修仁齋)였다고 한다. 순정효황후는 여기서 매우 어렵게 살았다. 하루 쌀 한 홑으로 두 끼 밖에 먹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흥천사를 찾아와 기도를 올렸다. 한 홑 밖에 안되는 쌀을 아껴서 향과 초를 사서 양손에 든 채로…. 전쟁 후 이 조선의 마지막 국모는 창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1966년 숨을 거두게 된다. 흥천사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종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대처 스님들이 머물던 절이었지만 지금은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에서 인수해서 주변을 정비하면서 사찰의 면모가 일신되고 있다. ●



- 1. 극락보전은 조선 철종 4년에 지어진 건물로 안에는 주불인 아미타불은 중앙에 작게 모셔져 있고 양 옆에는 주불보다 훨씬 큰 관세음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다른 절에서는 보기 힘든 배치이다.
- 2. 흥천사는 전각과 불상, 탱화, 편액에 이르기까지 대원군이 중창할 당시의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사찰이다. 만세루에는 대원군이 쓴 흥천사 편액이 달려 있다.
- 3. 극락보전 오른쪽 천정 아래 영친왕의 글씨가 편액으로 달려 있다.
- 4. 법당 밖 오른쪽에는 명부전이 있는데 세로로 달린 명부전 편액은 고종 황제의 어필이라고 한다.
- 5. 뒤편 언덕 위에 칠성각, 삼성각 등 기도처가 되는 전각이 외따로 떨어져 있어 기도객들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황 찬 익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산과 절 전문 스토리텔러로
〈기도도량을 찾아서〉, 〈이야기가 있는 산행〉,
〈서울의 전통사찰〉 등을 집필했다.

아름다운 꽃으로 맞이하는 가을 식탁 국화떡케이크와 국화차과편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윤동주시인의 국화 옆에서 시처럼 노란 국화꽃이다.

마음을 설레게 하고 꽃은 전 세계인들이 식용으로 사용한 식재료였다. 한국에서도 진달래 같은 꽃잎을 이용해 전을 부쳐 먹었고, 일본에서는 벚꽃 소금절임, 서양에서는 샐러드 등의 요리에 꽃을 이용했다.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꽃은 국화, 장미, 금잔화, 팬지, 진달래 등이 있다. 이러한 꽃에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효소, 미량 원소 등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식국(食菊)'이란 말이 있는데 '국화를 먹는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양기가 가장 치성한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重陽節)'이라 했다. 조상들은 이 무렵 피는 국화꽃을 감상하며 술 위에 국화꽃잎을 띄워 국화주를 마셨다. 국화꽃을 아예 날로 먹기도 하고, 국화뿌리를 적시며 흘러나오는 국화수를 받아다 마시기도 했다. 국화떡도 만들고 화전(花煎)도 부쳐 먹었고, 조선시대 궁중의 왕세자들은 건강은 물론이고 두뇌발달을 위해 보양과 보양식으로 국화죽을 먹었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국화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며 노화방지, 위장을 평안케하고 오장을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하여 감기에방과 머리를 맑게 하여 심신을 안정시킨다'고 기록돼 있다. 오늘은 가을꽃의 대명사 국화를 이용한 차음식 '국화차과편'과 '국화떡 케이크'를 소개한다.

국화차과편은 국화차를 우린 물과 청포녹말을 넣어 굳힌 과편이고, 국화떡케익은 국화차를 우려서 쌀가루에 내려 대추, 완두, 연근을 소로 넣고 가을의 정기를 담은 약선떡이다. 두 요리에 들어가는 국화차는 눈을 시원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두통에 효과가 있다. 국화차과편은 궁중에서 즐겨 먹었던 요리다. 국화차를 우린 물과 청포 녹말을 넣어 굳혀 꽃떡 고명을 올려주면 훌륭한 디저트로도 변신 할 수 있다. 탱글탱글한 과편을 먹으면 입안에 국화향이 가득해진다. 그리고 국화떡케이크는 국화차를 우려서 만든 떡으로 녹두고물의 깊은 맛이 일품이다.

고문헌인 <증보산림경제>에서는 국화가 활짝 핀 것은 꽃받침을 버리고 꿀에 버무려서 촉촉하게 하여 녹말에 이리저리 굴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꺼낸 후 다시 꿀물에 넣고 잿을 띄워 마신다고 실려 있다. 청정지역에 자란 감국 한 움큼으로 국화차를 만들어 넉넉한 삶의 향기를 담아보고 싶은 계절이다. 색과 향 그리고 맛이 오감을 자극하는 맛깔스러운 요리로 변신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다.

노란 국화로 맞이하는 가을 식탁을 준비해보자. ●



류 현 미 전통음식연구가

전통식문화 연구소 소장.
KBS '한국인의 밥상', '무엇이든 물어봅시다', SBS '모닝와이드 맛있는 요리대결', MBC '공감' 등 방송 출연과 국내외 잡지 기사를 통해 우리 음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 <한식대사 류현미의 집밥초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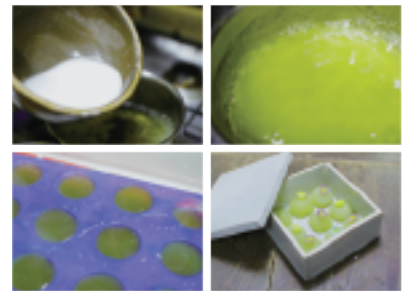
국화떡케이크

재 료

국화차 3g, 물1L, 멥쌀가루 6C, 찹쌀가루 1C, 연근 30g, 완두배기 20g, 대추 10g, 치자물 3T, 설탕 7T, 소금1/2T, 녹두고물 1C, 꽃떡 만들기 : 꽃절편

만드는 방법

- ① 물 1L를 넣고 펄펄 끓이다가 국화차 3g을 넣고 우린다.
- ② 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섞고 소금을 넣고 체에 내린다.
- ③ 우린 국화차와 치자물을 섞어서 쌀가루에 수분을 주고 체에 내린다.
- ④ 체에 내린 쌀가루를 냄비에 넣고 다진 연근과 완두배기와 대추, 밤을 넣는다.
- ⑤ 끓는 물에 20분 찌고 준비한 녹두고물과 꽃떡을 올려준다.



국화차과편

재 료

국화차 우린 물 3C, 설탕 2T(기호에 따라 조절), 소금 약간, 물 1/2C + 녹두녹말 1/2C, 고명 : 국화꽃, 꽃절편

만드는 방법

- ① 국화차를 끓이다가 거품을 손가락으로 건어 내고 설탕을 넣는다.
- ② 서서히 조리다가 녹두녹말을 동량의 물에 풀어 준다.
- ③ 불을 서서히 줄이면서 조금씩 넣어 엉기도록 빨리 저어준다.
- ④ 틀에 국화꽃을 아래에 놓고 쏟아서 굳힌다.
- ⑤ 모양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위에 절편으로 꽃떡을 만들어 올리면 완성이다.



가정 상비약 소도환(消導丸)·청간환(淸肝丸)

소도환은 산사, 향부자, 감초, 건강 등 28가지 한약재와 녹말 가루 등을 혼합하여 2mm 정도의 크기로 조제된 환제이다. 소도환은 한의학에서 ‘식체(食滯)’이란 증후에 사용하는데 식체증은 과식, 불규칙한 식사, 상한 음식 및 위에 부담이 되는 약물 등의 원인으로, 가슴과 명치의 답답함, 지속적인 트림,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임상에서 위염,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 장내 가스 과다 등에 응용 할 수 있다. 소도환의 복용 시간은 공복과 식후 모두 복용 할 수 있는데, 위운동을 촉진하는 산사, 계내금, 후박, 지실 등의 약제와 위산과다를 조절해주는 백출, 소엽, 황련 등의 약제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삼릉과 봉출 등의 약제는 장내 가스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위장관의 운동을 안정적으로 도와준다.

이처럼 소도환은 다양한 소화불량증에 복용할 수 있으므로 가정 상비약으로 적당하다. 위·십이지장점막 출혈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 항암치료 중,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복용 중,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복용을 금하고, 몸에 허열이 심하며 식은땀(도한)을 지속적으로 많이 흘리거나 오랜기간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주의를 요한다.

1회 복용량은 2g~5g, 1일 2~3회 나이와 체격에 맞게 복용한다.

청간환은 흑축, 갈근, 인진, 진피 등 13가지 한약재와 녹말가루를 혼합하여 2mm 정도의 크기로 조제된 환제이다. 청간환은 한의학에서 ‘주상(酒傷)’이란 증후에 사용되는데, 과음 후 나타나는 소화불량증과 숙취 등 해소에 좋다. 청간환 구성 약재중 진피, 사인, 후박 등은 과음에 의한 소화불량증을 호전시키고 흑축, 갈근, 갈화 등은 숙취와 두통, 열감 해소에 도움을 주며 택사와 백복령 등은 소변을 잘 볼수 있게 한다. 청간환 구성 약제는 여러 숙취해소 음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청간환은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여러 연구에서 갈근과 갈화, 흑축 등은 간장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는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간장 보호효과의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다만, 활동성 간염이나 간경화 등으로 전신 쇠약감이 심한 경우, 소변량이 적은 경우, 이노제 등을 복용 하는 경우는 전문의와 상담을 요한다.

음주 전후 복용 할 수 있고 1회 복용량은 3~6g 정도, 1일 2~3 복용 한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의료기술 세계화 토대의 첫걸음, 제1회 한·중 간 재활의학 포럼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분당한방병원은 중국 중의과학원 왕징병원과 5월 16일 중국 북경에서 재활분야 학술 포럼(The 1st China and South Korea Rehabilitation Medicine Forum)을 개최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신 의료시스템과 임상 의료진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고, 포럼에서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권병선 과장 외 3명이 발표한 동국대학교병원의 양·한방 재활치료에 대한 주제는 약 3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정형외과, 간호부문에 대한 임상결과 소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양 기관은 재활분야 학술포럼이 의료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의료서비스 세계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국제보건박람회 2015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국제진료사업 확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카자흐스탄 국제보건박람회(KIHE) 2015’에 참가했다.

15일에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아타켄트 호텔에서 열린 ‘Medical

Korea & Beauty in Kazakhstan 2015’ 행사에 본원이 한국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 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사 전시 및 비즈니스 미팅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양·한방 재활 협진, 한방미용, 각종 중증 질환에 대한 수술 및 치료가 현지인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본 행사는 카자흐스탄 보건사회발전부에서 주최하였으며, 22년째 열리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보건산업 박람회로서 지난 2014년에는 26개국 약 300개 기업 및 단체가 참석한 행사이다.

문신제거 시술 지원으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도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문신제거 시술을 지원하는 특별한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문신을 한 청소년들은 문신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위축감이 크고 보호관찰기간이 종료된 후 사회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원은 이들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 7월 까지 총 24명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약 120여 회의 문신제거 시술을 지원했으며, 문신제거 시술을 위한 비용은 매달 병원 교직원들에 의해 모여진 기금을 사용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문신제거 시술을 받은 학생들은 외관상 만족도가 높았고 타인 앞에서도 당당해 질 수 있었다며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곽월희 간호부장,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에서 강연

곽월희 간호부장이 올림픽 체조경기장과 코엑스에서 열린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에서 강연을 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장과 병원간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곽월희 간호부장은 21일 코엑스에서 ‘한국의 의료보건 체계(The health system of Korea)’의 주제로 영어강연을 하여 각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세계간호사들에게 한국보건 의료체계의 우수성을 잘 알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대회는 간호교육과 연구, 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육하는 학술대회로 진행되었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도 약 60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에 대해 함께 공유

하고 대한민국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마거릿 찬(Margaret Chan)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세계평화기원과 세계간화선 무차대회
의료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5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과 세계간화선 무차대회에 의료부스 10곳을 설치하고, 약 50여 명의 양·한방 의료진이 참여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지원을 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법회로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약 20만 명이 참여하여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한반도 통일선언 법문과 진제법원 정종예하의 ‘참나’를 일깨우는 종단의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진수와 법어를 들었다.

대회진행본부는 의료지원팀에게 “행사가 끝날 때까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약 500여 명의 불자들을 치료하는 등 행사를 무사히 마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어 고맙다.”고 전했다.



2015년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

간호부는 제24회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8월 5일부터 6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모유수유 실천해요'라는 주제로 모유수유권장 전시 및 캠페인 활동을 시행했다. 본원 모자동실 안내와 활동소개, 모유수유 교육 및 자료 전시, 한방 산후 보양 패키지 소개와 경육곡 시음, 산모 영양식단 등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은 예비 산모와 산모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모유수유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동국대학교병원만의 특화된 양·행방병원의 장점을 잘 살렸다는 평가와 함께 일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과의 긴밀한 협조로 대학병원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소화기내과 강현우 교수,
'세계적 선도 전문가' 2015년판 등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강현우 교수가 '세계적 선도 전문가(Leading Professionals of the World)' 2015년판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등재는 여러가지 소화기 질환과 관련된 생활습관, 식이, 비만 등의 위험 인자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과 논문 발표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강 교수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4, 2015)'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소화기 분야 최고 저널 중 하나

인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impact factor: 9.213)에 '내장지방과 과민성 장 증후군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교신저자로 논문을 발표하여 세계 석학들의 주목을 받았다.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
2015 대한암학회에서 노바티스
Merit Award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는 6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1회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암 컨퍼런스(The 41st Annual Meeting of Korean Cancer Association with International Cancer Conference)에서 노바티스 Merit Award를 수상했다. 이날 노주원 교수는 'Biological significance of yes-associated protein (YAP) in endometrial cancer'로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새롭게 확인된 YAP 유전자의 비정상적 발현이 자궁내막암 발생에 관여하며, siRNA 합인 키노산 나노입자를 이용한 YAP 유전자 발현억제가 자궁내막암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성인자원봉사자 모집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님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주 1회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한 분

활동 시간 오전 9시~12시 / 오후 1시~4시

활동 외래 진료과와 검사실 안내,
내용 무인수납기 사용 안내 등

문의 사항 사회사업실(병원 지하 1층 위치)
031-961-8361

DUMC NEW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신경외과 수술현미경 및 수술대 도입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는 병원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경외과 미세수술한미경과 수술대를 도입하였다.

미세수술현미경(Operating Microscope)은 신경외과에서 뇌종양 수술 시 사용하는 독일 Carl Zeiss사의 최첨단 특수 형광 염색 현미경으로 뇌혈관 수술과 뇌종양 제거술에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뇌혈관 관련 수술 시 화면을 Infrared 800모드로 변경하고 인도시아닌 그린(ICG)조영제를 정맥 내 주입하여 동맥류의 결찰 및 추가 결찰 등이 가능하여 뇌혈관 수술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국대학교 총장, 메르스 대응팀에 위로금 전달



7월 13일 동국대학교 총장실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고자 총장 및 교무위원들이 모은 위로금 500만원이 태석기 의원원장에게 전달됐다.

한태식(보광 스님) 총장은 “경주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 3명을 완치한 것은 훌륭한 시설 및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을 위해 사투를 벌인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의료진을 위로하고자 서울캠퍼스에서 300만원, 경주캠퍼스에서 200만원 총 500만원의 위로금을 모았으니, 의료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6일 태석기 의료원장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병원장실에서 MERS 대응팀들을 만나 격려하고 전달했으며, 이에 이동석 경주병원장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와 격려를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 발대식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 발대식을 7월 15일 병원 강당에서 가졌다. 발대식은 경주병원장의 미션 및 비전, 경영목표 발표로 시작하여 하경민 적정진료실장의 '의료기관 인증제 대비전략'과 이동욱 QI실장의 '인증평가 추진현황보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동석 병원장은 발대식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에 교직원 모두 합심하여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국 보훈의 달 맞이
보훈환자 선물증정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는 6월 12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동석 경주병원장, 지영한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원한 모든 보훈 환자들에게 나라를 위한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빠른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대통령 위문품과 함께 병원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다.

이동석 경주병원장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우리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조상과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 BBS 불교합창단,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5월 16일 본원 2층 로비에서 22명의 울산 BBS방송국 불교합창단의 재능기부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창단은 '애모', 'Once upon a dream',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향수', '만남' 등 총 10곡의 노래를 불러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음악회에 참여한 장두옥 단장은 "병원 환우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환우들의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며 반대로 합창 단원들이 감동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의 작은 음악회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DUMC NEWS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신뢰감을 주는 'DUMC의 단정한 옹모복장' 캠페인 실시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신뢰감을 주는 DUMC의 단정한 옹모복장'이란 주제로 내원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CS위원들이 직접 표지모델로 참석하는 등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서 캠페인 포스터로 제작됐다.

교직원들은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단정한 옹모복장으로 먼저 표현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새기며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다가 가겠다고 전했다.



재활치료장비 등에 QR코드 도입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재활치료 환자들을 위해 재활치료 장비 및 기구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QR코드는 치료장비 및 기구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이해하기 쉽고 짧은 시간내에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철민 재활치료실 치료사는 "재활장비 및 운동기구의 체계화된 사용방법을 제시해 좀 더

운동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작하게 됐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QR코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당한방병원은 환자와 보호자가 손쉽게 질병과 치료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상시 접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를 확대해 QR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운 연등으로 부처님의 자비 참뜻 새겨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5월 20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입원 및 외래환자분들께 연꽃을 나누어 드렸다.

연등은 바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고마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어 직접 연등을 만들며 부처님 오신 참뜻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교직원들은 전했다.

또한 종이컵위에 꽃잎을 붙이는 손 끝에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분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루 빨리 완쾌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연등을 받아든 환자분들은 "연꽃등이 참 고와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라며 고마움과 더불어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고 즐거워 하셨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이·취임식 열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취임식을 5월 26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하여 일산, 경주병원장, 일산한방병원장, 의과대학장, 한의과대학장등의 산하 기관장 및 내외 귀빈 3백여 명이 참석하여 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태석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취임사에서 "학교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진호 전 의료원장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의료원의 미래를 위해 모든 교직원과 구성원들이 합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기초의학학술대회 개최

제23회 기초의학학술대회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관하여 '기초를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연구활성화'란 주제로

11개 학회(대한기생충학회, 열대의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법의학학회, 대한병리학학회, 대한생리학학회, 대한약리학학회, 대한예방의학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해부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와 MRC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등 1,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해 국내·외 석학의 특강 공동심포지엄, 기초의학 통합 간담회, 자유연제 발표 형태로 진행되었다.

기초의학학술대회는 국내·외 기초의학 분야 석학과 연구자들의 연구업적 발표를 통한 학문간 상호 이해, 국내·외 교류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에서 한의과대학 건립기금으로 일억 원 약정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 60여 명이 참가한 '제20회 동국대학교 총장배 한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가 6월 21일 경주CC(보문단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정주화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여 한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건립기금 일억 원을 약정했다. 한태식 총장을 대신하여 전달받은 신재호 기획부총장은 "한의대생들을 위한 아낌없는 후원 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하고 "많은 후배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밝은 눈 & 밝은 마음 안과질환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부처님의 자비나눔과 의료시혜를 실천하고자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밝은 눈과 밝은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1. 각막질환, 망막질환, 선천성 소아안질환, 소아사시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분
 2. 사회 저소득 취약계층(최저생계비 200% 이하) 및 외국인 근로자
- ▶ 위 기준 적합자 중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발

대상 질환

각막질환, 망막질환, 선천성 소아안질환, 백내장

지원 내용

1. 치료목적의 동국대학교병원 진단검사비, 수술비
2. 지원한도 : 1인(眼)당 지원범위 100~300만원 한도 (단,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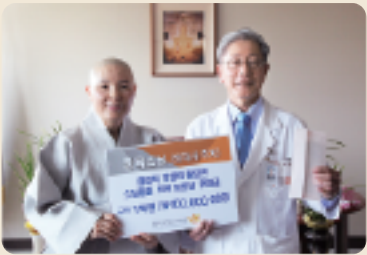
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사회사업실
▶ TEL 031, 961, 8360~1 Fax 031, 961, 8369
E-mail stunningbr@dumc.or.kr
2.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원무팀
▶ TEL 054, 770, 8683 Fax 054, 770, 8501
E-mail dumccs09@dumc.or.kr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구호기금 3,000만원 전달

동국대학교의료원은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 네팔 구호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교·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일산병원 17,490,000원, 경주병원 10,000,000원, 분당한방병원 1,000,000원, 의학계열 대학 교직원이 1,510,000원을 동참하여 총 3,000만 원의 기금을 모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강진으로 폐허가 된 네팔 재해지역의 복구와 2차 재난을 예방하는 등 중장기적 구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목 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스님 환자를 위한 후원금 1억 원 전달

정목 스님(정각사 주지)은 5월 25일 석가탄신일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 환자를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전달했다. 정목 스님은 “수행과 포교활동 중에 신체적 질병과 통증이 있어도 병원의 고액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스님들의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며 오늘의 기부가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님 환자를 위한 후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도법사 증취 스님, 병원버스 구입비 기부

지도법사 증취 스님은 6월 23일 동국대학교병원의 노후된 버스 교체에 써 달라며 버스구입비 전액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전년도 큰법당 불사에 사용하고 남은 돈과 연우책방 수익금 등을 모아 좋은 일에 회향을 하게 되었다. 지도법사 증취 스님은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지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제15회 난치병 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의료비를 7월 17일 지원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난치병 어린이는 2명으로 난치성 간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간질, 발육지연, 뇌성마비, 가스트 증후군 등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각 250만원씩 의료비를 전달했다.



병원 중형버스 구입에 불교회에서 3천만원 지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불교회는 6월 3일 경주병원 업무용 중형버스 구입에 써달라며 3천만 원을 경주병원장에게 건넸다. 병원 지도법사 무구스님은 “병원에서 업무 및 불교회 행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형버스가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교회 회의를 거쳐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3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2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내역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5. 1 ~ 2015. 7. 31

증취스님	₩130,000,000	고양시주지협의회	₩5,000,000	한국실명예방재단	₩1,080,350
학명스님	₩110,000,000	다솔회	₩3,494,5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남지회)	₩1,080,270
정목스님	₩100,000,000	영진스님	₩3,000,000	영천시보건소	₩1,010,480
동국대경주병원불교회	₩31,180,000	한국심장재단	₩2,929,800	백우진	₩1,000,000
정광진	₩18,000,000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2,106,640	상우스님	₩1,000,000
향적스님	₩10,000,000	이규욱	₩1,380,000	이명규	₩1,000,000
(사)생명나눔실천본부	₩6,206,970	김장현	₩1,300,000	이현종스님	₩1,000,000
조계종사회복지재단	₩5,300,000	기형스님	₩1,200,000	효림연꽃간병회	₩1,000,000

(사)한국 배설병 소아 협 회	권기업	김기호	김선경	김운송	김창조	노주원	박숙희	박희영	소선기	신운주	유은정	이동현	이영미	이지영	장순희	정윤섭	조혜영	최은호	한영희
K D M	권도윤	김남수	김선호	김용희	김초롱	노현주	박순양	방동률	소선기	신은희	유재일	이말보	이영미	이지영	장아름	정윤정	조혜련	최은정	한우식
	권동민	김남희	김선호	김유민	김지선	노현주	박순자	배경진	손구슬	신재환	유정임	이문정	이영실	이지원	장유현	정영준	조희권	최은정	한은숙
	권동경	김다인	김성경	김유민	김태규	노한호	박신애	배기향	손귀득	신형선	유재현	이문희	이영진	이지은	장유민	정은자	조희연	최은정	한은숙
강경민	권명조	김다정	김성권	김유정	김태련	노형수	박영근	배상만	손금영	심미나	유주형	이문희	이용석	이지은	장이순	정은희	주경희	최은진	한은숙
강나영	권범선	김대서	김성민	김유희	김태숙	류경현	박영석	배서영	손기원	안광삼	유창선	이미영	이용찬	이진호	장민권	정미선	주은명	최인주	한정훈
강민철	권병철	김도연	김성우	김을리	김태영	류대안	박영숙	배선영	손동희	안국식	윤기화	이 민	이원호	이진희	장충섭	정인영	지영한	최재연	한창호
강병조	권봉수	김도현	김성원	김은미	김태영	류이슬	박애슬	배주영	손영희	안미희	윤복분	미민우	이원호	이혜숙	장태영	정인원	진경애	최재훈	한정호
강보라	권삼숙	김도현	김성일	김은애	김태중	류준상	박옥석	배준호	손민정	안복연	이병기	이유나	이태봉	장태정	장재우	진경화	최정미	현담나수	(원성영)
강 석	권선아	김도현	김세민	김은영	김태희	모종은	박용경	배효상	손보미	안소연	윤소현	이보영	이은영	이태영	장호근	정재현	진선희	최정민	현미숙
강석진	권성실	김동욱	김세희	김은정	김필자	무주스님	박용완	배용해	손소정	안연술	윤수임	이보은	이은정	이하영	전소영	정지영	진영조	최정숙	한미숙
강승연	권성국	김동욱	김소라	김은정	김하검	(심선숙)	박원국	배옥진	손수원	안연길	윤애진	이상숙	이은주	이향년	전현정	정지현	차예순	최정화	홍민재
강서안	권수민	김동환	김소원	김은희	김하연	문지영	박유경	배옥희	손영자	안연숙	윤애진	이상영	이은주	이창미	장정숙	정지유	지옥련	최초기	홍보람
강연주	권순태	김명기	김소형	김이수	김한성	문혜자	박은애	배장미	손정민	안주연	윤정미	이상태	이자경	이현경	정경윤	정 찬	채기수	최준석	홍수연
강유진	권오관	김명희	김솔아	김인자	김해정	민상연	박은진	변아름	손정숙	안진아	윤종화	이선명	이자은	이현아	정경재	정찬호	채봉희	최준용	홍승옥
강이일	권운태	김모순	김수정	김정란	김현구	박가영	박익경	서고은	손정은	안희희	윤주연	이선아	이재노	이현희	정경철	정현희	채석래	최진수	홍은기
강지희	권일진	김문신	김수정	김정미	김현서	박경문	박재경	서미경	손정은	앤지앤	윤형근	이선영	이재련	이현경	정규용	정호근	채송아	최진영	홍은희
강자희	권태웅	김문필	김수희	김정미	김현숙	박경희	박재희	서아열	손정화	엘레콤	윤혜진	이선영	이재순	이현정	정규원	정희정	채영애	최창익	홍은희
강해성	권해경	김미경	김숙경	김정미	김현정	박 관	박정민	서상연	손주연	양경숙	윤혜진	이선영	이재우	이혜빈	정기훈	제아람	채수아	최한기	황보수진
강현숙	권향화	김미경	김숙자	김정민	김현정	박기철	박정숙	서덕수	손주영	양시향	이가영	이선희	이재화	이혜영	정다영	조경애	최가영	최해용	황선순
강현우	권효숙	김미숙	김소덕	김정배	김현지	박기원	박정화	서영문	손주영	양인숙	이강현	이소민	이재환	이혜인	정다운	조근태	최가윤	최현미	황유자
강혜진	권훈열	김미영	김순희	김정숙	김현란	박대필	박준호	서영진	손혜민	양창현	이경미	이소영	이정백	이호민	정대근	조기국	최영민	최현정	황유자</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료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불교계	☐ 교직원	☐ 기업/단체	☐ 기타 ()
	☐ 동문 (입학년도 :)		☐ 대학(원) :		전공 :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 현물기부(	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기부의견					

남부방북
북방남부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만에 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dumcco@dumc.or.kr / 팩스 ▶ 031•961•571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031•961•5713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10326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Autumn | VOL. 4

“고려의원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께 꼭 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최고의 의료기관 동국대
의료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
제
선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진료과 전문 의뢰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향
- 동서양 의학 접목을 통해 각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 One stop system 건강진단 실시로 당일 건강진단 후 신속한 당일결과 상담(판정) 가능
- 고객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후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정밀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 숙박검진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검사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방거주자 및 편안하고 여유롭게 검사하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비신랑 · 신부검진, 청소년검진, 장수검진 등 생애 주기별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31. 961. 7698~9, 7702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hpc/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 본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늄 종합검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뇌혈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는 VIP를 위한 가장 최고급 종합검진입니다. 주요 암질환과 각종 위험인자를 광범위하게 정밀진단하는 최상의 프로그램입니다
특 화 종합검진	가족력, 이력 등에 따른 특화된 검진으로 개개인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54. 770. 1430~3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gj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031-961-79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054-770-140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031-710-3712/3781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학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